

광주시, 시민 안전 위협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박차

252억 들여 이달말까지 35km 완료 2단계 1083km 정밀조사 후 정비 약취 예방, 시민 생활 안정 기대

광주시가 지반 침하와 약취를 예방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

뉴얼'에 따라 광주시 관내 하수관로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430km를 대상으로 긴급 보수 구간과 일반 보수구간을 선정하고, 긴급 보수구간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긴급 보수구간을 1·2단계로 나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중 우선 정비가 시급한 35.01km에 대해 이달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단계 노후정비사업은 2016년 347km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내부 파손 정도와 누수 등 결함상태를 평가해 정비가 시급한 35.01km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9년 9월 착공했다. 국비 48

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2억원을 투입해 굴착 교체 7.78km, 비굴착 전체보수 15.70km, 비굴착 부분보수 5.63km, 암거단면보수 5.9km 등을 이달 말 준공한다.

시는 특히 비굴착 보수공사 때 튜브를 관내부에 삽입하는 보수방법을 도입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소음을 해소하고 지하매설물 손상을 줄여 공사비 절감과 민원, 안전문제 발생 등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도 냈다.

시는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5월까지 2단계 정비사업 대상

1083km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조사된 긴급보수 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우현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지반침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침수 예방, 약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래차 전장부품 기술고도화 광주시, 참여기업 30곳 모집

기술·사업화 2개 분야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광주시는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사업의 기업지원 분야 참여기업 30곳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 주관하고 (재)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부식방식학회, 전남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사업은 자동차 전장부품의 고질적 고장과 리콜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장부품별 신뢰성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장부품의 설계, 평가, 양산으로 이어지는 모든 개발단계를 지원한다.

전장부품은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전자·정보·편의 장치들로 레이더, 라이다센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차선이탈 방지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전장시스템 관련 부품기업 또는 전·후방 연관 기업이며, 모집 분야는 기술지

원, 사업화지원 2개 분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분야는 전장부품의 개발·생산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설계단계 신뢰성기술 접목, 신뢰성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총 10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화지원 분야는 개발된 전장부품의 판매, 홍보 및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특허기술 시물레이션 등 총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 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접수는 오는 19일까지며, 2차는 9월6-16일, 3차는 10월4-14일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로 문의(062-960-9291)하거나,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장은 "이번 공모에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미래 전장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친일인사 전남방직 김용주 동상에 단죄문 설치

광주시는 11일 전남방직 내 김용주 동상 인근에서 '단죄문' 제막식을 열었다.

단죄문에는 "3·1운동 102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광주 학생독립운동 92주년을 맞이해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 김용주의 단죄문을 설치한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김용주(1905~1985) 전 전남방직 회장은 조선 임전보국단 발기인과 경북지부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 찬양, 황국 신민화 정적 선전 등을

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아들인 김무성 전 의원은 선친의 친일 행적 논란에 수차례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태스크포스 협의, 전문가 용역을 거쳐 2019년 3곳·8개, 2020년 6곳·21개 일제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을 설치했다.

올해에는 이날 설치된 김용주 동상을 비롯한 광주향교 비각중건기, 학동 서정주 비문, 전남도시제사 굴뚝, 광주경찰서 옛터, 사월산 지하동굴(3개) 등에 단죄문과 안내판을 설치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복절 맞아 태극기 퍼포먼스 제76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1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표범식 북구의회의장 등 공직자들이 우산으로 태극기 문양을 만들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북구는 광복절을 맞아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기업과 동반성장 노력 전남도-포스코 협약

전남도와 포스코가 10일 여수의 (주)인성에 이어 11일 순천의 주식회사 프리사와 각각 동반성장 협약을 하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따리 열린 협약식에는 안규혁 (주)인성 여수공장장, 김향래 주식회사 프리사 전무, 고미경 전남도 기반산업과장, 강태욱 포스코 혁신허브팀장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포스코는 울타리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에 뜻을 같이하고 다양한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을 발굴했다.

례제 드럼을 생산하는 (주)인성과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는 프리사는 전남도와 포스코의 현장평가를 통해 올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참여기업의 성장을 위해 개선방법론, 변화관리, 벤치마킹 등 기업의 맞춤형 교육과 함께 현장에 맞는 혁신활동 컨설팅으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운영 노하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컨설팅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전남도가 주관하는 재정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다.

전남도와 포스코는 올해 2개 기업에 시범 사업을 하고,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대상 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소방, 전국 최초 생활안전순찰대 전면시행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 생활밀착형 소방안전서비스인 '119생활안전순찰대'를 8월부터 22개 시·군에서 전면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구조, 구급 등 전문지식을 갖춘 소방대원이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각 마을 이장단과 협의해 취약계층 가구를 정하고 직접 방문해 ▲주택화재 안전진단 ▲생활의료서비스 ▲생활 불편 및 위험환경 개선 등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소방서비스를 한다.

지난 5월부터 강진·장흥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확대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5개월 빠른 8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전남소방은 22개 시·군 전면시행 계획에 따라 22개대 66명으로 '119생활안전순찰대'를 확대 편성해 매월 1700여 취약가구에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발집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 실적은 연평균 1만 8천677건에 달한다. 이는 3년 평균 구조건수 3만 4천157건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로, 생활안전활동이 소방활동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